돼지는 왜 죽어서도 웃는 낯일까

주필

엊그제 떡국을 먹었으니 또 한 살을 더 먹었다. 옛날엔 떡국 국물을 만들 때 부유한 집에선 꿩고기, 없는 집에선 닭고기를 많이 썼다고 전해진다. 여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다. 이날 아침 아이들은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 집안 어른 및 친지들에게 세배를 한다. 설빔은 새해를 맞이하여 설날에 입는 새 옷인데, 노랑과 분홍 등 색동에는 어린이들의 앞날이 밝게 트이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한다.

눈이 오면 개들이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듯이 설이 되면 제일 좋아하는 이는 어린아이들이다. 설날은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설레는 날이다. 고까옷(때때옷) 입고 세뱃돈도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수 없다. 이날이 오면 평소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도 어쩐지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만 같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로 시작되는 윤극영의 동요 '설날' 4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한데 까치들의 설날은 왜 어저께일까? 삼국유사에 재미있는 기록이 보인다. 신라 21대 비처왕(혹은 소지왕) 때 선혜(善兮) 왕비가 묘심(妙心) 스님과 내통하여 왕을 살해하려 하였다. 하지만 왕은 까치(까마귀)와 쥐, 돼지와 용의 도움으로 이를 모면하였다. 문제는 쥐·돼지·용의 경우 모두 12지에 드는 동물이라 기념할 날이 있었지만 까치만 그런 날이 없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설 바로 전날을 까치 설날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고

하지만 이는 다분히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까치설은 '작은 설'이라는 설(說)이 더 설득력이 있다. 아주 옛날에는 작은설(섣달 그믐날)을 가리켜 '아치설', '아찬설'이라고 했다. '아치'는 순우리말로 '작다'(小) '작은'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아치설에서 '아치'의 뜻이 상실되면서 음이 비슷한 '까치설'로 엉뚱하게 바뀐 것이다.

어찌 됐든 이제 까치설도 우리들의 설도 다 지나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지난해 개의 해에 이어 올해는 돼지의 해다. 사람들은 개와 돼지를 한 묶음으로 엮어 누군가에게 욕을 할 때 '개돼지 같다'라고 한다.(사전에도 '개돼지'는 '미련하고 못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해서 한 단어로 올라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엊그제는 여비서를 성폭행했던 전직 도지사가 드디어 쇠고랑을 찼다. 수많은 후배 여성들을 울렸던 어느 유명 연극인도 법정 구속됐다. 일찍이 최영미(58) 시인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돼지에 빗댄 바 있다. 2005년에 발표한 '돼지들에게'란 제목의 시를 통해 문단 내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도 속은 온통 욕망으로 뭉쳐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그들에 비하면 오로지 종족 보전을 위해 본능에 충실할 뿐인데도 가만히 앉아서 욕을 먹는 돼지들은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니! '돼지 발톱에 봉숭아물'이라니! 이런 모욕이 또 어디 있나. 하여 나는 부당한 대우에 침묵으로 맞서는 저 개돼지들의 억울함부터 우선 풀어 주고 싶다. 시인 최영재(72)의 '개 같은 인간'이라는 동시를 들려주면 저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으려나.

"어휴, 개 같은 인간." / 길 가던 사람의 혼잣말을 듣고/ 강아지가 어미에게 물었지요./ -엄마, 저 말이 칭찬인가요?/ "아무렴, 개 같은 인간이라면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표정과 말이 다르니 인간이지."/ -그리고 비웃었어요./ "인간은 원래 비웃음, 쓴웃음, 헛웃음 … 웃음도 복잡한 동물이야."/ -말투가 어쩐지 욕 같았어요./ "개는 주인을 무조건 좋아하지. 개는 남을 속일 줄 몰라. 개는 괜히 남을 미워하거나 발톱만치도 속이려 들지 않아. 그러니 개 같은 인간이라면 아주 괜찮은 사람 아니겠니?"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공감이 가는 참으로 멋진 시다. 인간의 나쁜 속성을 이리도 정확하게 꼬집어 놓았으니, 이만하면 개돼지들도 충분히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너희들한테 늘 미안하다. 너희 돼지들은 우리를 위해 삼겹살에 목살에 심지어 껍데기까지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우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너희들 욕이나 하고 있었으니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올해는 돼지의 해라 해서 오랜만에 너희들에 대한 칭송이 자자(藉藉)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인가. "돼지는 탐욕의 상징이라지만 자신의 적정량을 섭취하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강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 미련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개나 고양이보다 더 영리하다."

받는 것보단 주는 게 더 행복

돼지가 개보다 영리하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유머가 떠오른다. 지금은 시인이 됐지만 오래전 도지사를 지냈던 분으로부터 박장대소하며 들었던 얘기다. 어느 날 암퇘지가 암내를 내서, 주인아주머니가 아랫마을 수퇘지와 교미를 시키기 위해 리어카에 태웠다. 안 타려고 떼를 쓰는 암퇘지를 억지로 태워 겨우 접을 붙이고 돌아왔다. 한데 새끼를 배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는 안 된다. 그래 다음 날 다시 교미를 시키려는데 돼지우리에 암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참을 찾은 후에야 겨우 발견했는데. 아뿔싸, 그 암퇘지가 리어카에 미리 타고 얌전히 앉아 있더라는 얘기. 이때부터 '얌전한 꿀꿀이 리어카에 먼저 올라탄다'는 속담이 생겼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다만 돼지의 총명함만은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다.

돼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가축인 육축(六畜: 소, 말, 돼지, 염소, 개, 닭)에 들어간다. 예전엔 '돝'이라 불렀으며 '돼지'라는 명칭도 '돝아지'(도야지)가 변해서 된 것이다. 한자(漢字)에서 집을 뜻하는 '가'(家) 자를 보면 돼지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동물인지 알 수 있다. 갓머리(宀)에 돼지 '시'(豕). 옛날에 도적과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의 아래층에 돼지우리를 설치하고 위층에는 살림집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황금 돼지의 해라 해서 특별히 '빈 외양간에 황소 들어오듯' 뜻밖의 재물이 생길 리 없건만 우리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황금 타령'을 해 대는 데 여념이 없다. 한데 왜 돼지는 제사상에 올라서도 온화하게 웃는 낯인가.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 마지막 자신의 '몸뚱아리'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내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어렸을 땐 몰랐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광주는 민주화 이뤄진 거룩한 성지"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당권 주자로 첫 광주 방문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7일 오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당원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7일 "광주는 민주화가 이뤄진 거룩한 성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한 황 전 총리는 이날 광주시 북구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당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광주·전남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드린다"면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대한 나라이며, 광주는 민주화가 이뤄진 거룩한 성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다"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고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총리는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려서 다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당대표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광주시당 방문에 앞서 전북도당을 찾는 등 당세가 약한 호남벨트 민심을 공략했다. 그는 전북도당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자유 우파가 뭉쳐 재집권해야 한다. 당에 들어오면서 처음 한 말이 통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생이 힘들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 당과 함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북 비건 미 대북대표 '북미 실무협상' 결과 주목

오늘 중 서울 도착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르면 8일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한미협의후 지난 6일 평양으로 향한 비건 특별대표는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진행한 2박3일 간의 방북 실무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8일 서울로 돌아올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 전 대사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 베트남) 합의문에 들어갈 비핵화 이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집중 조율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구체적인 귀환 시점이나 우리 측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서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기 전에 (우리 측과) 사전 협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평양에서의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미실무협상 마무리 시점은 현장의 협상 상황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양이라는 장소 특성상 속도감있는 효율적인 협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일본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8~9일 서울에 파견돼 비건 특별대표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북핵) 수석대표 간 만남 등 가나스기 국장이 우리 측 당국자와 만날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천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최선규 H.010-3605-5000

임야
단독섬/지분물건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날부동산
☎ 010-3111-5087

國家公認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기)	광주교육대학교(19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